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2023년 9월호

개막

모두가 함께 그리는 《이것 역시 지도》

오늘날 현대 미술계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예술에 대해 억눌렸던 욕구가 엔데믹 전환과 함께 폭발적으로 분출되며, 디지털 전환과 시각예술 수요자의 세대 교체로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는 듯하다.

비엔날레에도 팬데믹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1996년 10월,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과 제1회 미디어_시티 서울 《도시: 0과 1 사이》 이후 2년마다 빠짐없이 개최되어 오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2020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한 해가 연기되고, 2021년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가 비대면 모드로 개최되는 등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그리고 2023년 9월 21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사실상 5년 만에 관람객을 전시장으로 맞이하는 셈이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이것 역시 지도》라는 전시 제목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을 비롯한 6곳의 장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비엔날레는 5년 만에 비엔날레 작가와 관객을 전시장으로 맞이하는 특별한 회차로, 그 어느 때보다 관객과의 소통이 간절해졌다. 참여 작가들과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이번 비엔날레는 영토의 개념을 벗어난 지도 그리기를 통해 관람객과의 소통 경로를 되찾고, 잠시 단절되었던 만남의 길을 다시 되짚어 가려는 노력이 있다. 또한 비엔날레가 제시하는 ‘지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리적 위치를 기반하는 지도가 아닌 정치, 사회, 문화, 지리적인 경계가 사라진 ‘대안적 지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시 주제의 실천적 이해를 도모하고 문화 예술의 다양한 층위를 아우르는 프로그램과 관객 참여형 행사는 ‘모두가 함께 그려갈 비엔날레’의 핵심적인 경로이다.

개막에 앞서 비엔날레는 9월 4일(월) 사전 행사를 개최하고 서울아트위크 시기에 맞춰 국내를 찾은 다양한 관람객들을 초청하여 동시대 국제미술과 서울의 주요한

문화 현장인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직접 경험하며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을 마련한다. 작가가 직접 소개하는 작품의 프리뷰, 연계 퍼포먼스,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가까운 소통을 시도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석자가 연결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전 관람을 준비하고 있는 두 작품 중 하나는 토크와세 다이슨의 신작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 (힘의 곱셈)〉(2023)이다. 공간과 움직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억압과 자유 사이의 긴장 상태를 표출하는 작가의 연작으로, 이번 비엔날레에서 처음 공개된다. 미술관 로비를 가득 채운 검고 웅장한 구조물은 침묵을 강요받아 온 억압과 폭력이 남긴 어둠을 연상케 한다. 작품 사이의 구멍과 빈 공간을 오가는 움직임이 더해지면 작품은 비로소 완성된다. 작품의 프리-프로덕션에 참여했던 안무가 권령은 동명의 퍼포먼스를 초연하며, 몸의 움직임 통해 작품을 재해석하는 예술적 상상력을 더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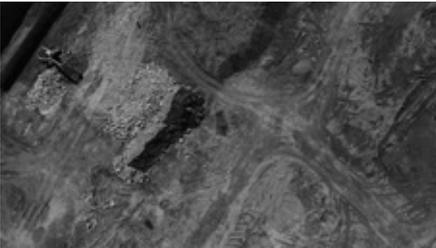
또 다른 작품은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미술가 그룹 이끼바위쿠르르의 〈땅탑〉(2023)이다. 작품은 미술관 앞 마당에 서울 근교의 장소에서 옮겨 온 흙을 나무 거푸집에 넣고 다져서 세운 무명의 기념비로 세 개의 군락을 형성한다. 도시 근교의 산업 단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보금자리이며, 갑작스러운 개발은 이들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이동하게 만들었다. 수백 년 넘은 나무 역시도 개발이 시작되면 뿌리째 뽑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공동체와 나무를 이어주던 흙의 이동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인간과 비인간의 이동에 관해 말을 걸고 있다.

떠돌고 헤매는 자가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 역시 지도》가 제안하는 대안적인 지도를 살펴보면, 지구상의 대체로운 개인의 공간과 존재가 다차원으로 연결되며 양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지형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12회 비엔날레는 예술가와 관객들이 모두

정재현

함께 그리는 공동 지도로서 변화한 시대에 맞는 소통의 장을 경험하는, 모두를 위한 비엔날레로 기억되고자 한다.

우리만의 길을, 각자의 지도를 그려가며 모두를 위한 비엔날레를 함께 완성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감각 증폭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사진 프로그램 (프리비엔날레)부터 본 비엔날레까지 계속해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역사적 궤도를 추적하며 ‘현재’와 ‘물러난 지금(혹은 과거)’의 시공간을 연결짓는 참조점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자기참조적 지도 그리기는 이번 비엔날레를 구성하는 제작, 전시, 출판물 비롯하여 토크, 워크숍, 퍼포먼스, 팟캐스트, DJ 라이브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SMB12 ‘행사’를 통해 확장된다.

이번 비엔날레는 주제적으로 이동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이송되는 저마다의 움직임과 개별적인 몸짓을 살피며, 하나의 연대를 이루는 통일성보다 서로의 차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다중의 가능성에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태도는 비엔날레 전반에 걸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 언어의 사용에서도 이어진다. 한글과 영어의 교란적인 배치는 보다 적극적인 읽기 경험을 유도한다. 자신의 모어 혹은 특정 단어와 대치되는 번역어를 찾아 활자를 더듬는 시선은 필히 두 개의 언어를 오가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시간 소통은 동시적이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이의 입과 귀를 통과하여 가공된 언어에 기반한다. 매끄럽지 않은, 벌어진 언어의 틈새 속에서 기다림과 모호함을 수용하는 것이다. 의도적인 지연과 소통의 시차 발생은 경험의 재구성을 촉진하며, SMB12 행사의 생리이자 이것을 작동하게 하는 간접적인 지침이 된다.

SMB12 행사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소개하는 작가와 작품의 연장에서 준비되기도 하고, 거꾸로 이곳에 당도하는 말과 소리에 집중하기도 한다. 작가 켄트 찬과 서울커뮤니티라디오가 공동 기획한 ‘열대 주파수(Ft) 라디오’는 열대 지방의 열기와 기후가 이야기하는 청각적 상상력을 팽창시켜, 가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열린 디지털 파티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여러 DJ들을 초청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옥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라이브 행사는 비엔날레 개막일의 밤을 열대 미래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협업은 비엔날레 기간

중 스포티파이와 SMB12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팟캐스트에서도 이어진다. 약속된 시간에 실시간으로 주파수를 맞추어 듣는 라디오와 기록된 소리가 배달되는 팟캐스트, 서로 다른 형태의 두 행사는 청자들에게 각각의 시간대에서 비가시적인 세계로의 몰입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이 작가는 1955년 발매된 대중가요 ‘아리조나 카우보이’를 참조하여 퍼포먼스와 음향설치 작업 〈아리조나 카우보이(as part of Far West, So Close)〉를 준비하고 있다. 서부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종의 학습된 낭만과 이국적 풍광을 그대로 옮겨낸 듯한 이 가요는 중독성 있는 리듬에 연신 ‘아리조나 카우보이’를 반복하면서도 ‘고개 너머 주막집’과 같이 불시착한 번역어 가사가 돋보이는 유행가이다. 여러 명의 화음과 목소리로 구성되는 합창 퍼포먼스는 전시장의 현상음과 함께 녹취되어 매일 약속된 시간에 서소문본관 마당의 스피커를 통해 재생된다. 이질적인 노랫말과 귀에 익은 리듬의 조각은 일상의 소리 세계에 침투하며, 반복적인 ‘들리기’를 잠시 중단시키고 적극적인 ‘듣기’ 운동이 활성화 되는 순간을 포획한다.

안데스 작가는 12회 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에서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 워크숍을 통해 여러 협업자와 함께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땅의 지진파를 음파로 변환하여 테크노 음악을 만들었다. 비엔날레 기간동안 작가는 DJ Xannex, ZEEMAN과 함께 창작한 12개의 테크노 트랙에 맞춰 지질학자 박성준, 스트릿댄서 고주혜와의 협업으로 땅을 이해하고, 온몸으로 땅을 청취하여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본다. 다회차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기초적인 감각 운동에서부터 신체 기관을 활용한 열린 지각 활동을 통해 몸으로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까지 이어지며, 마지막 회차에는 땅의 형상을 둘러입은 몸들이 한데 모여 감각을 공유하는 라이브 행사로 이어진다.

이처럼 다양한 SMB12 행사는 서로의 다름이

이미지

교차하는 이질적인 마주침을 위한 시간이자 비엔날레의 말과 사유를 재수집하고 이를 증폭시키는 발판으로 준비되고 있다. 일시적인 시간을 함께 통과하게 될 각각의

참여자들이 다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자의 흙을 모으고 이해의 발을 구르며 일상의 지반을 다시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안테스, 위크숍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로 춤추라〉
대표 이미지, 2023
작가 제공

↑ 이재이, 〈아리조나 카우보이(as part of Far West, So Close)〉,
2023
작가 제공

파열과 단절에 기반을 둔 소속감

번성한 흑인 공동체였지만 한 백인 여성 강간 폭행사건을 계기로 마을이 불타고 주민들이 살해되면서 유명 마을로 전락하여, 결국 뷰포드 댐의 완공과 함께 레이니아 호수 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미국 조지아주의 오스카빌. 노예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벤슨가 사람들이 마을에 학교, 은행, 철도를 세우며 흑인 인권 개선을 위해 힘썼지만, 마틴 호수의 댐이 물을 방류하면서 사라져 버린 미국 앨라배마주의 코왈리자. 미국 오레곤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전도유망한 흑인 공동체였지만 인종 차별적인 당국의 대처로 모든 것이 홍수에 잠겨 버린 밴포트.

호랑이의 척추를 따라 이어지는 백두대간에서 혈관처럼 뻗어 나가는 수많은 능선. 일제강점기의 한반도에서 땅의 지세와 혈맥을 끊어 그 땅에 연결된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고자 온 국토에 박혔다고 전해지는 쇠말뚝 단혈철주(斷穴鐵柱), 혹은 일제가 근대식 지도 작성과정에서 토지측량을 위해 심었다는 쇠꼬챙이.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능선을 오르내리던 사람들. 신식 도로의 건설과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조선 왕가의 상징적 건축물인 창경궁과 종묘를 사색하며 들어선 종묘관통도로(현 울곡로).

이 이야기들은 2023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미국의 미술가 토크와세 다이슨과 한국의 안무가 권령은이 서로 공유하고 연결한 협업의 조각들이다. 범세계적으로 유행화한 쇠의 형식 속에서 이산, 이주, 이동이 만연해진 오늘날, ‘탈영토적인 지도 그리기’의 경로를 탐색하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두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 (힘의 곱셈)>을 선보인다.

토크와세 다이슨은 스스로를 환경, 지리, 문화, 인프라 및 건축이 갖는 연속적인 특질을 다루는 ‘화가’로 설명한다. 작가는 평면과 입체를 가로지르며 추상적인 조형언어를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유색인종의 신체가 자연 및 건축 환경과 맺는 관계, 그리고 그것이 지리 및 소속감과 갖는 연관성을 탐구해 왔다. 이를테면, 걸프 지역의 진주

채취 산업 역사가 아프리카 노예 무역 산업에 끼친 영향을 가시화 한다거나, 바다, 수로, 댐 같은 물이라는 지리적 요소/인프라가 도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인종, 글로벌 자본주의, 무역, 채굴의 역사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다룬 바 있다.

한편, 권령은은 주로 한국의 사회 문화적 구조나 제도 안에서 몸에 물리적이고 개념적인 변형이 가해지는 방식을 실험하는 움직임들을 만들어 왔다. 군 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용계 내부에서 몸이 다뤄지는 변화의 양태를 포착한다거나, K-pop 랜덤 플레이 댄스나 관광버스 댄스 같은 통속적인 대중의 놀이문화를 빌려와 공적인 장소에서 ‘일시적 놀이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 보기도 했다.

토크와세 다이슨과 권령은이 만든 협업은 ‘일종의 거둬들이는 번역’의 수행으로 설명된다. 짧게 말하자면, 토크와세 다이슨이 어떤 조형적 움직임을 제시하면, 상대 협업자가 나름의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또 다른 제시를 통해 전개되는 방식이다. 이번 비엔날레에서의 협업은 이러한 번역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토크와세 다이슨이 탐구해 온 관심사를 권령은과 함께 경유하여 어떻게 미국과 한국 사이에 적극적인 공유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각자의 작품으로 뻗어 나간 두 예술가는 동일한 제목 아래 폭력과 단절을 딛고 나타나는 몸과 환경의 상호작용, 새로운 형태의 소속감과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 동시에 이러한 개념적 층위는 조각과 춤이라는 형의 언어를 거쳐 일종의 기하학적 추상화가 된다.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무대이자, 환경이자, 하나의 모뉴먼트로 자리하는 조각을 살펴보면 세 가지 눈에 띄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안과 밖, 수직의 높고 낮음, 마지막으로 전체 조각을 아우르는 수평의 선. 여기에는 관통과 연결이 반복된다. 무용수들의 몸은 이를 다시 움직임으로 치환한다.

토크와세 다이슨과 권령은은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이혜원

대안적인 소속의 방식과 그로부터 가능해지는 소속감의 가능성을 질문하는 듯하다. 이미 우리의 환경적 조건이 되어 버린 폭력적인 역사와 파편적인 삶의 양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공동체를 이루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을까? 아직 그 확실한 윤곽을 축지하긴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상상해 보건대 이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한 장소에서 역사적 단절없이 통합된 자아와 세계상을

구축한다는 향수적인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일 것이다. 이를테면, 동일한 정체성, 물리적 인접성, 시공간적 연속성으로부터 상정되는 통상적인 의미의 친밀감과 소속감에서 벗어나, “부재, 거리,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파열과 단절에 기반을 둔” 관계의 가능성은 아니었을까.*

* 권미원, 『정소특정적 미술』, 김민규, 우정아, 이영옥 옮김 (서울: 현실문화, 2013), 23.



↑ 미국 조지아 주 북부의 체타후지 강에 있는 뷰포드 댐으로 레이니어 호수를 가두고 있다, 1999
사진: 미 육군 공병단 디지털 비주얼 라이브러리 위키미디어 커먼즈 제공



↑ 표시된 지역은 1856년의 세네카 빌리지, “Receiving Reservoir”라 적힌 지역은 현재 그레이트 잔디밭이다.
사진: 에그베르트 빌레의 〈1856년 6월 17일 지형 측량에서 확인한 센트럴 파크에 포함된 땅의 지도〉에서 발췌한 세부 이미지



↑ 조선 영조 때(1724~1776) 여암 신경준이 조선의 산맥 체계를 정리한 『산경표山經表』의 내용을 도표화 한 것이다. 『산경표』는 우리나라의 산맥 체계를 산 줄기와 하천 줄기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백두대간과 연결된 정간-정맥으로 집대성했다. 특히 산맥 체계를 축보처럼 정리하여 산 줄기가 변형되고 생성되어 온 흐름과 그것이 건너리는 유역의 관계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도를 신체의 연장으로 생각했던 전통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발행인 최은주
편집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글 정재현, 이미지, 이혜원
번역 이수진
영문감수 앤디 세인트 루이스
디자인 마바사(안마노, 김지섭)
인쇄, 제작 세걸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메일 소식 구독을
원하시면 아래 QR코드를 따라 신청해주세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contact@mediacityseoul.kr
mediacityseoul.kr



↑ 이끼바위쿠르르, <평탑>, 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전시 전경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